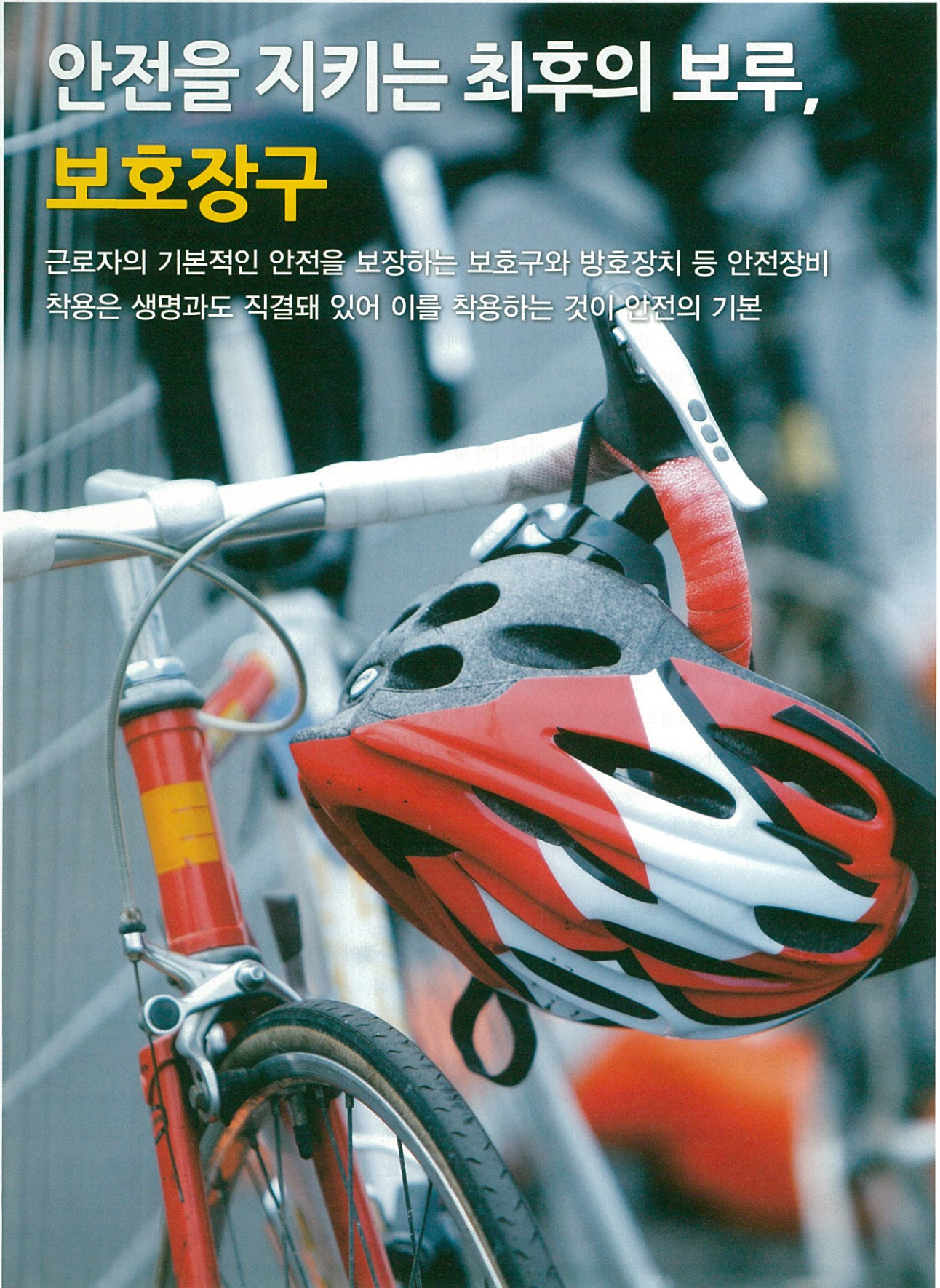


#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보호장구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구와 방호장치 등 안전장비 착용은 생명과도 직결돼 있어 이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





### 사례1

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A씨는 최근 전진주 감전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며칠째 강하게 불어온 바람에 자신이 묶어놓은 현수막이 날아갔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A씨는 근처 전주 꼭대기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발견했다. 전주 주변을 둘러보던 A씨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안전장비 없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전주 윗부분에 있는 애자까지 다다른 A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현수막 줄을 자신의 몸 가까이로 잡아당겼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고압이 흐르는 전선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됐고, 강한 충격에 정신을 잃으면서 10m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선에 손 등이 닿으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완치 여부도 알지 못한 채 기약 없는 시간동안 치료를 받아야하게 됐다.

### 사례2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B씨는 얼마 전 치아 6개가 부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집 근처 하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던 중 예기치 못한 자전거 충돌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이다.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턱 보호대가 장착돼있지 않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막상 사고가 날 때는 무용지물이었다. 치아라 병원비도 상당하지만, 평생을 임플란트 치아로 지낼 생각을 하니 B씨의 가슴은 답답해져 온다.



이진주 기자  
한국전기신문사

우리 주변에서는 갖가지 안전사고들이 벌어진다.

A씨의 경우, 전선 곁에 감아놓은 전선보호용 절연 비닐을 감전방지용으로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게 사고의 가장 큰 이유였다.

특별고압이 흐르는 충전전로의 경우 30c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해야 하고, 가까이에서 작업할 경우 정전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부분에 부착해야 한다. 또 일반 면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되고, 절연용 장갑과 신발, 안전모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A씨는 이 모든 것을 간과한 것이다. B씨 또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당한 사고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는 비율은 매년 3% 이상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몇 가지 안전수칙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고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누전에 의한 감전해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작업장에 임시로 설치한 배선선로에는 선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는 필수다. 절연용 보호구뿐만 아니라 각종 보호구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인 만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륜차를 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역시 보호구다. 특히 헬멧과 장갑은 필수. 머리는 물론이고 손가락, 손목, 손바닥에 타박상 및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장비 착용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안전은 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구와 방호장치 등 안전장비 착용은 생명과도 직결돼 있어 이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이다.